



예수성심 강화김포친교회

# 마음향살

지도신부: 조인준 미카엘 / 회장: 강성훈 베드로 / 편집 및 발행: 강화·김포 친교회 홍보 위원회 / 2026년 5월31일 제8호

여는 글

## 성심의 여정을 따라나선 길

종신예정반 강성훈베드로 (강화김포친교회 회장)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로 세상살이에 성심을 전파하는 예수성심 수도회 슈발리에 가족으로 입회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유기 양성 과정을 마치고 종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살피고 이끌어 주신 영적 동반자 신부님들과 양성 교육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시작의 그 첫걸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을 때 걸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쉽게 초대에 응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에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며 투신 하리라 마음먹고 걸어 왔지만 그 길과 걸음이 활짝 피어나는 시간에만 있지 않았음은 당연한 사실이기에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 절반의 시간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자성해 봅니다.

양성 과정에서 반복되어지는 마음의 영성이란 주제와 실체, 그리고 나눔을 통해 과연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교만과 오만으로 성심의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지 못하며, 의무와 습관적으로 점철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도 공허함이 남고, 기쁨보다 점점 부담이 앞설 때, 참으로 사랑하며 봉헌해야 하는 하느님 사랑을 뒷전에 두고 보여주기만 하는 바리사이의 기도와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이 3년 차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고, 내면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물음표가 자리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성심을 들고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분의 마음과 행위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아 이 사랑을 증명하기보다 먼저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이 양성의 기간에 진정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지, 또 사랑이라는 그 명제에 따라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안주하며 내 생각과 방식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하느님의 이끄심과 은총에 자신을 맡기는 용기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삶으로 조금씩 걸음을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이 살이가 상처 없고 문제없는 신앙 공동체와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알아볼 때, 우리는 성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친교회 형제, 자매님 우리가 성심의 여정을 나선 것은 누구의 부름도 우연도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과 예비하심이 있었다고 굳게 믿으며, 성서 구절을 떠올려 보소서. 사도행전(8, 31)에 나오는 내시가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6, 44)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하심과 같이 내가 누구로부터 초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이끌어주셨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신앙과 성심의 여정을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걷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이끄시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려 할 때 우리도 일상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 지금까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시련에서 이끌어주신 분이 결국 하느님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생의 여정에서 성심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시편 34, 9)” 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친교회 회원님, 이 시간까지 오는 과정과 시간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채, 영적 목마름 속에서, 삶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떨어져 나간 친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겪는 고통도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저와 함께 성심께 종신의 약속을 통해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맞추고자 하였으면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오니 이제 강화김포 친교회 일곱 분의 자매님과 제가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뜻에 내 마음을 온전히 일치시킬 수 있도록 남은 여정에 은총을 청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여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마침내 실천하는 종신 약속을 하는 우리들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적이거나 성공만을 바라며 성심을 찾고 있는지? 이제 작으나마 마음과 행동, 말에 성심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가리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의 시간까지 나를 짓누르는 바쁜 일과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삶에서 뜻하지 않은 역풍과 일어나는 풍랑에 흔들릴 때마다, 고통으로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배안으로 언제든지 다가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


실을 알았기에 종신의 기쁨 안에 있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들이 겹겹이 다가와 쓰러지게 하는지 탓 아닌 원망도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계산을 넘어서는 가치를 찾았기에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며, 소박하고 사소한 것들 안에서 슬픔도 고통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적이며 참된 행복임을 알기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 안의 사랑, 용서, 배려, 위로라는 영적 여정을 따르기로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강화김포 친교회 형제, 자매님! 이 다짐이 굵뜨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깨달아 삶의 무게와 슬픔 때문에 주님을 알아뵈지 않게 하시며, 고통을 없애 주기보다는 함께 지시고,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해매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거워지고 새로운 의미로 채워 주시며,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예레 1, 8)

이에 감사의 송가를 다 함께 부르며 저희 친교회 올해 비전에 있는 ‘배우고 익혀 실천하는’ 삶에서 성심이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시도록 힘써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 <성소자를 모집합니다>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영성을 함께 실천하며 살고자하는 평신도 모임

강화, 김포, 부천, 일산지역 거주자

문의: 010-5245-9300

# 강화·김포 친교회 제1기

## <종신 약속자들의 성구와 소감문>



방희자 가타리나

### <주님의 열매>

“신부님, 강화에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는데 ‘친교회’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이런 말을 들으신 신부님, ‘싱긋’ 웃고만 계셨는데……. 5년도 더 흘렀을까? 주님께서 ‘강화·김포’ 친교회를 세워주셨고, 환경에 비해 교통이 다소 불편한데도 열여섯 명이라는 회원을 예비하시어 ‘약속식’에 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말에도 귀 기울이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힘’이시구나 라고 감탄하며 저의 믿음도 단단해져 가는데 한 몫 했습니다.

‘희망을 잃은 자의 희망이신 예수 성심의 어머니 성당’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담고 월 피정에 임할 때 우리 회원들은 부족한 저를 진실한 말, 필요한 말, 친절하고 환한 웃음으로 예수 성심께로 영적인 공동체로 향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약속식’에 임하며 함께 해주신 우리 친교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성실히 예수 성심에 합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 8)



강성훈 베드로

인도자이신 성령님, 저를 성심으로 이끄시고 돌보아 주신 5년간의 여정에 감사드리며, 이 기간 제가 예수성심의 겸손한 마음, 측은한 마음, 봉사자 마음, 인간적인 마음, 자비로운 마음, 새 마음, 순명의 마음, 사탄의 마음, 하느님 마음, 용서의 마음, 가난한 마음을 지니도록 양성기간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혔으니 그 뜻에 맞게 성령이 시여,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어 종신을 통해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저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처럼 살아가도록 다짐해 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 20)



이화우 까리따스

내가 무엇이관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나이까?! 많이 많이 부족한 죄인을 부르신 자체가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이에(80) 종신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하느님으로부터의 숨은 뜻과 사명이 있다고 믿기에 제 일상 삶 안에서 수시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성심께서 온 세상을 통하여 사랑 받으소서'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선교사로서의 삶의 근본을 다지며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경외 안에서 두려움 드리며 그분께 잠겨 듭니다. 제 전인격과 영혼 안에 그분이 온전히 차지 하시어 당신 뜻 이루시도록 봉헌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 6, 10)



이정희 크리스티나

예수성심의 사랑과 이끄심으로 종신까지 오게 된 것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일깨워주며 서로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가족 같은 강화 김포 친교회 회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종신 약속에 임하는 모든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친교회 핫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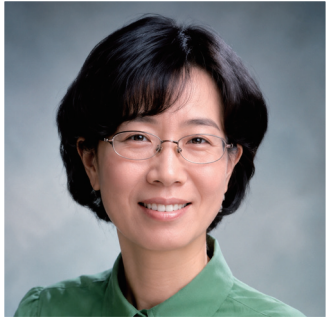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지켜 주시고  
저희를 이 세대로부터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시편 12, 8)



김상단 리디아

오랫동안 예수성심 전교 수도회에서 주방 봉사하며 지내왔지만 친교회는 늘 저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친교회 회원이 되고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종신 약속을 앞둔 이 자리에 서게 됨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친교회를 통해서 예수성심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 봅니다. 저를 불러주신 예수성심의 사랑과 신부님을 비롯하여 친교회 회원님들의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이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카 5, 16,~18)



장은경 마르첼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 생명의 빵으로 살리신 것처럼 저도 당신의 말씀을 따르며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 36)



박영선 글라라

장거리 교통편과 가족 간병이라는 힘든 여건속에서도 종신 약속의 문 앞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고픈 저의 열망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중도포기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 그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영적 지도 신부님과 양성교육 봉사자님, 친교회 회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 문턱이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저의 부족함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예수성심께서 온 세상에서 사랑받으시도록 일상의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선교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 9)



이현숙 미카엘라

삶은 마치 털실을 엮어 스웨터를 완성해 가는 과정과 같다. 하나하나의 실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과 삶의 순간들이다. 때로는 엇갈리고 풀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조차 하느님의 손길 안에 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나는 다시 코바늘을 들고 삶을 엮어간다. 보이지 않던 무늬가 완성되듯, 나의 삶도 신앙 안에서 의미를 이루어 간다. 완성된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엮어가는 신앙의 여정이다. 문득 궁금해진다, 나의 스웨터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받으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 5)



강화·김포친교회 제1기 회원 여덟 분의 종신약속을 축하드립니다!  
(2026. 6. 12. 오전11시 장소: 강화 예수성심어머니대성전)



## 2025.12.8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창립기념일에

MSC 첫성인이 되신 예수성심의 평신도 선교사인  
파푸아뉴기니의 성 피터 토롯 시성 감사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 피터 토롯 성인 유해 안치식 안내

총원으로부터 온 유해 안치 예식이 관구 본원(지축)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7월 7일 (화) 오후 2시



**첫 서원식 2026 2.2(월) 14시 장소: 관구 본원**  
 이도선 리노 수사님, 정승현 판그라시오 수사님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영 사도요한 형제님의 입회를 축하드리며 (2026.3)  
 주님 품 안에서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 알림: 국제회의(APIA) 미팅 초대

수도회에서 국제회의인 APIA(아시아 태평양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APIA 미팅에 각 친교회 회장단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국경을 넘어 슈발리에 가족으로서의 친교 나눔과 영성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10월 31일 (토)
- 장소: 강화꽃동네 프란치스코 피정센터

## 첫 서원 25주년(은경축)

양성욱 바오로 신부님  
 이성우 가스발 수사님

‘하느님의 은총으로 걸어오신 수도자의 길에  
 깊은 감사와 축복드립니다’



### ❖제5차 전국회장단 회의

2025.12.7.(일)~8.(월), 12.7.(일) 오후 3시 30분 강화성당에서 집결하여 개최되었습니다

**2026.6.12.**  
**예수성심대축일에**  
**종신약속자 24명**  
**첫약속자 21명이**  
 성심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자로서  
 충실하게 살 것을 약속하는  
 예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강화김포친교회는 2021년 3월 22일 참사회에서 발족 승인 받아  
 2021년 5월 31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축일에  
 성모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예수성심 대축일에 처음으로  
 종신약속식에 8명이 임하게 됩니다.

방희자 가타리나	강성훈 베드로
이화우 까리따스	박영선 글라라
김상단 리디아	이정희 크리스티나
장은경 마르첼라	이현숙 마카엘라

제1기 종신 약속식을 맞이하는  
 강화김포친교회 회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강화김포친교회 회원 일동-

### ♡26년 평의회 일정

6월 17일	7월 15일	8월 휴회	9월 23일
10월 21일	11월 18일	12월 휴회	

(셋째 수요일 오후 8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강화·김포친교회 이모저모 1

## 나눔햇살

### 강화김포친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후원 활동 보고

#### 베트남 까마우성 <사랑의 집>

농사지를 땅이 없고 임시로 살고 있는 집도 나무와 나뭇잎으로 지어져 매우 낡은 상태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어 매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탁 르엄 가족을 위해 우리 강화김포친교회 회원들은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까마우성 사랑의 집 결과보고서



후원자

예수성심강화김포친교회 님

현판명

LMSC Ganghwa·Gimpo

수혜자  
정보

이름: Thạch Lương/ 탁 르엄(1960년생)

주소: 까마우성 자라이동 3번 마을

가족 수: 3명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임시로 살고 있는 집인데,  
나무와 나뭇잎으로 지어져서 매우 낡은 상태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있어  
매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현판  
사진



'사랑의 집'  
준공 전



Hộ Thạch Môm, sn 1960, ở xã...

'사랑의 집'  
준공 후



## 2026년 하반기 축일회원

7월 12일 이미향 베로니카

7월 24일 이정희 크리스티나, 백승현 크리스티나

8월 11일 박영선 글라라

9월 29일 조인준 미카엘 신부님

9월 29일 이현숙 미카엘라

10월 7일 최덕순 로사리아

11월 1일 김민아 라헬



## 라오스에서 온 편지

### 기술교육 센터 리모델링 사업 현황 공유

라오스 후아판주의 낡은 '폐교'를 안전한 배움의 공간, 학생들의 기술교육센터로 다시 살려 재봉·컴퓨터 교육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교실을 먼저 안전하게 고쳐야 하는데 라오스는 지난 2월, 전국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면서 모든 정부 인사들이 변동되는 일로 인해 약 1~2달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며 행정 처리에 공백이 발생되었고, 폐교 리모델링 허가서 발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이에 따라 2월 요청했던 허가서가 4월 30일(목)에 승인되었으며, 현재는 허가서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은 약 1달 소요되므로, 완료되는 대로 6월 중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또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 26년 상반기 월피정 일정표

- 6월 12일 - 예수성심 대축일 및 약속식
- 7월 6일 - 강화수도원
- 8월 27일 - 전국 친교회 줌피정
- 9월 7일 - 강화 수도원
- 10월 5일 - 친교회의 날 (장소 미정)
- 11월 2일 - 강화수도원
- 12월 8일 - 창립기념일 행사

## 지속적인 양성 프로그램



### 〈종신1년차반 줌강의〉

교재: 사명에 투철한 인간, 줄슈발리에  
 일시:매월 마지막수요일 오후8시  
 교육담당: 박영배루카신부님



# 강화·김포친교회 이모저모 2



새해 생미사와 연미사지향 봉헌하시는  
조인준 미카엘 신부님 2026.2.17.(화)



2026.2.2. 임명장 수여



친교회 방을 꾸미고 청소한 후, 신부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6.3.2.(월)



순례의 날 월피정(2026.4.6.)  
자비와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신 위로의 예수님과 함께  
장소: 이승훈 베드로 순교 성지 기념관



위로의 예수님상



이승훈베드로 기념관 경당에서  
미사집전하시는 조인준미카엘 신부님



순례의 날 월피정(2026.4.6.)  
성지 기념관 순례 후 친교의 시간을 가진 카페 앞에서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김상단 리더야(3/27)



방희자 가타리나, 김진희 가타리나(4/29)



이화우 까리따스(5/31), 장은경 마르첼라(6/28)  
강성훈 베드로(6/29)

**고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zoom강의를 통하여 지도해  
주신 담임, 부담임 봉사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